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20호 현대불교 25

2011년 1월 26일(음 12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서 너부터 찾아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물과 흙이 따로따로 있다 하더라도, 흙 하나만 봐도 지수화합입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맥이 통하듯이 흙이라는 산하대지가 전체의 물고름이예요. 물고름, 물고름 이자 바로 그계 맥을 이어 주는, 즉 말하자면 우리의 피가 돌듯 모든 물이 흙의 세포에 충전되고 있죠. 그러니 이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니 내 몸의 섬유를 알면 삼천대천세계 우주 천하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주인공 뿌리 하나가 있듯이 은하계에도 큰 블랙홀이라는 별이 그 은하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주가 탄생하는 것도 그 가운데는 근본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셋이 한데 합쳐서, 그거 뭐니까? 돌아가게 하는 거, 하얀 거, 돌리려면 조그만 구슬이 거기 들어가서 그계 돌아가야만 이다 돌아가듯, 그렇게 돌아가야만 우주가 별성을 낳고, 또 들고고 낳고 또 들고고 낳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는 게 아니라 삶의 의식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고 그 원근본과 자기의 입력된 영혼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이 없죠. 중심은 데 콩 나고 팔심은 데 팔 나게 되는 거죠.

차원이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나 하면 왜, 이런 게 있고 깨닫는 게 심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그 콩 줄기가 있는 다 죽어 버리고 씨만 나오죠. 씨 하나만 나온 것을 조금 쉬었다가는 그 이듬해 봄에 그 씨를 심으면 다시 그 싹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도 죽으면 잠시 눈에 보이지 않았다가 그 차원의 종자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지옥 천당이 따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 해서 법정에 들어가서 돌아서, 즉 차원대로 콩씨는 콩씨대로 심어져 나가고... 아주 딱바로 얘기하자면 자기가 깨달아 살았으면 개로 모습을 가지고 나올 거고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로 태어나기도 하고, 차원이 말입니다.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모습을 쓰고 나올 때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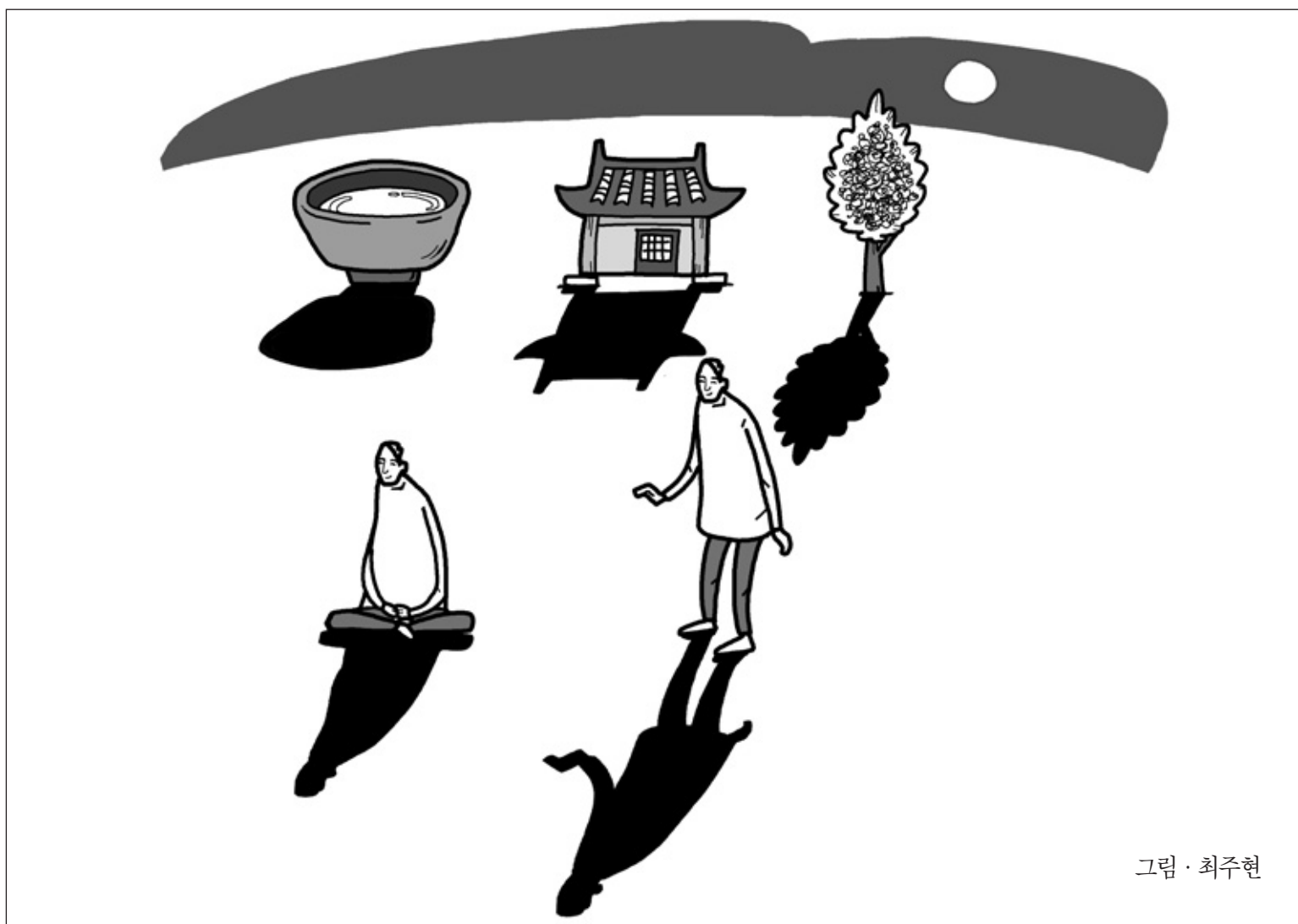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번 바뀌어서 말입니다. 화해서 나오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가시겠죠?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사람이 죽으면 재를 곱게 해서 놓기도 하고 쌀을 곱게 해서 놓기도 하고 밀가루를 곱게 해서 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뭐가 됐나 하고 그 발자취를 보죠. 뱀이 지나간 자리가 있기도 하고 사람의 발자취가 있기도 하고 새의 발자취가 있기도 하고 두꺼비 발자취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죠. 옛날에 저 어려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는 것을 내세우고 모르는 사람을 깔보고 그러는데 내가 전자에, 과거에 몰랐을 때의 내 모습으로 봤으면 다 등골에 쓸 수 있을 텐데 그냥 오 시대의 요것만 보기 때문에, 넓게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아주 저런 낮고

나는 높아지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를 내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죽어서, 이 죽은 사람들이 모일 때 강통은 강통대로 모이고 금은 금방에 모이고 닙마는 닙마전에 모인다는 말을 내가 가끔 합니다.

여러번 한 가족이 모여서 사는 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꼭 알아야 할 일입니다. 강통이 저런 데 버려져 있으면 강통을 집어서 강통 모인 데 갖다 놓지 강통을 집어서 금방으로 디밀진 않습니다. 안 그럴까요?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세요. 배나 사과도 큰 거는 큰 것대로 작은 거는 작은 것대로 골라 놓고, 금은 아무리 하치 않은 금이라도 금방으로 갈 것이고, 닙마는 닙마전으로 갈 것이고, 강통은 강통전으로 갈 것이고,

무쇠는 무쇠대로 무쇠전으로 갈 것이고, 사람이 사는 법에서도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이고, 스스로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교수는 교수대로 모일 거고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안 그렇습니까? 고거 몇 마디만 해도 아시겠죠?

그렇게 까리까리 모아듯이 한 가정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까리까리 모여서 살게 마련이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까리까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부기간이나 부모자식기간이나 내가 잘했으니 내가 잘했으니, 내가 잘했으니 내가 잘했으니 이렇게 모두 각각 놀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면 지식들은 그걸 배우고 그걸 따라가게 돼 있고, 은연중에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강통이 부슬거린다

고 이 강통이 저쪽 강통에게 "너는 강통이 돼서 그래!" 그리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강통인데요. 그래서 잘 살고 또 마음의 발전을 이루어 자유인이 되려면 자식을 원망하지도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도 말고 부부기간에 각자 자기를 원망하지도 마시라 이겁니다. 모두가 까리까리 차원대로, 5차원이면 5차원대로 만나고 1차원이면 1차원대로 만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생겼고 상대가 생겼으니까 말썽이 생긴 거지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말썽이 어디 있었겠는가. 상대가 어디 있었겠는가. 세상이 벌어진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부처님이 계신 줄 알았겠는가. 죽고 사는 걸, 생사의 모든 거를 알았겠는가. 아무것도 몰랐을 거다. 내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모두를 잘 알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나서 이 모두를 보고 배우니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승 아님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거룩한 나무가 한 그루 싹을 때에 내가 그걸 보고 좋아하면서 '아하, 저것 참 묘하게 생겼는데...' 하고 쳐다볼 때에 그것도 스승인 것입니다. 발부리가 돌에 치어 발부리가 아파서 '아이고, 아파!' 하고 있을 때에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돌부리에 차인 거고 돌부리에 차였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스승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원망을 해요?

그런데 변연히 자기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가 '나'라고 세우고 이렇게 하니 부처님께서 '모든 일을 네 탓으로 알고 네 모습으로 보고 네 마음으로 보고, 네 부모로 보고 네 자식으로 보고 네 형제로 보라. 그렇다만 수억겁을 미생물에서부터 거쳐서 진화해서 사람까지 된 그 역사를 알 수 있느냐!'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없다면 부처님 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불교라는 자체가, 바로 '불'이라는 것은 만물만생의 근본, 생명의 근본입니다. 풀 한 포기 생명도 바로 불입니다. 불(佛)! 만물만생이 서로

26면으로 계속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이 마가목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개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년이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전화번호: 031)673-1285
참나선원 데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분자님 연락바랍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혜택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빌딩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사람 마음을 쉽게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 정체성 확립 및 음성 표정 연출 등 이론과 실습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격려사), 회의, 토론, 최면 등 실습
- ◆ 인간관계에 필요 충분조건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교육일정

- ◆ 종합반 : 5인반, 10인반
- ◆ 개인지도 : 1인 개인지도, 2인반, 3인반

연수안내

- ◆ 기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 강의 : 종합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개인 상담후 강의시간 결정
- ◆ 장소 : 본 연수원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우물 철학박사 김철희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인협회 이사장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韓國 說法 研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